

“‘자연과의 공존’ 도연명의 가르침 담아”

양희석 전남대 교수·대학원생 이수진씨
‘도연명 전집’ 2권 번역 출간
“시간간 초월 보편적 가치 강조”

중국은 시국(詩國)으로 불릴 만큼 가라성 같은 시인들이 즐비하다.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선(詩仙) 이백, 시성(詩聖) 두보, 송나라 대문호 소식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앞서 동진(東晉)과 남조 송(宋) 두 왕조에 걸쳐 활동했던 이가 있다. 바로 도연명이다.

자연으로 돌아가 전원생활을 읊은 ‘귀거래사’로 알려진 도연명은 중국만이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조선 초기 명화인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는 도연명의 삶과 문학을 제재로 한 회화가 동아시아 삼국에 걸쳐 유행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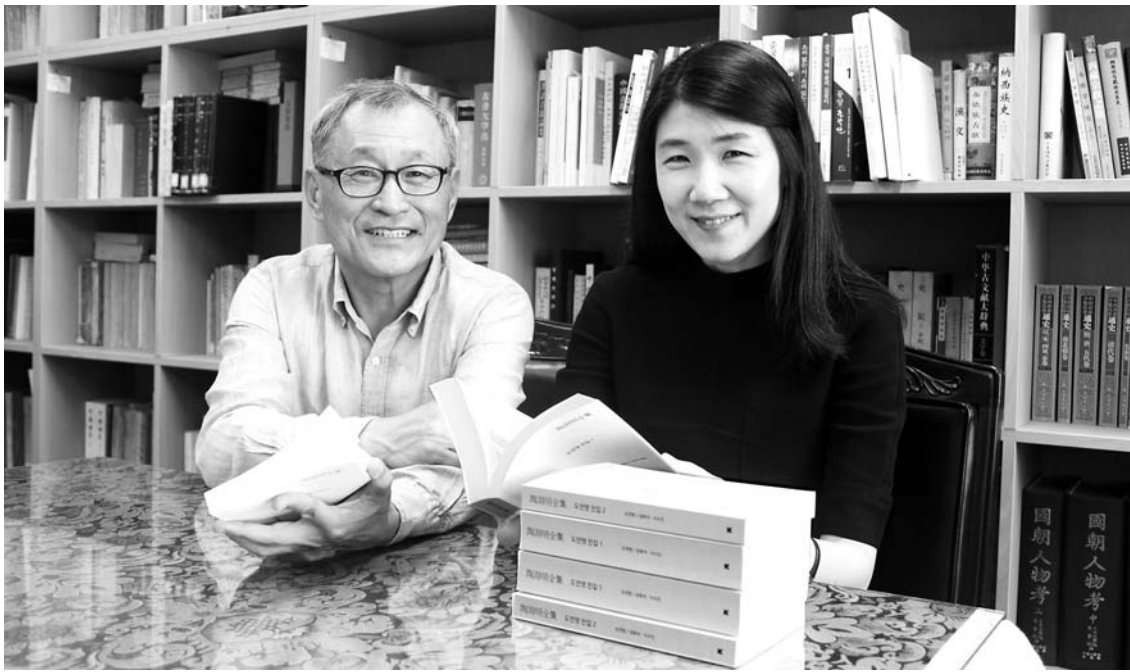
당나라 이후 최고 시인으로 평가받는 도연명의 작품 전집을 번역한 이들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양희석 전남대 중문과 교수와 대학원생인 이수진씨가 주인공. 지도교수와 제자인 이들은 최근 ‘도연명 전집’ (2권·지식을 만드는 지식)을 번역 출간했다.

“도연명의 작품은 소박한 언어로 전원생활을 주로 읊고 있지만 결코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설명해 줄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해설도 미흡한 실정이었죠.”

양 교수는 도연명의 영향력은 깊이와 넓이에 있어 문학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의 시대에도 도연명은 여전히 유효할까. 양 교수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대중가요 ‘귀거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 도연명은 여전히 가까이 있지요. 그의 저술 또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아마도 ‘전원생활’, ‘자연과의 공존’, ‘귀농’ 등 화두가 부각하고 있는 오늘날, 그는 영원한 ‘자연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여전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수진 씨 또한 도연명이 남긴 작품, 글을 통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도연명의



‘도연명 전집’ 2권을 번역 출간한 양희석 전남대 중문과 교수(왼쪽)와 이수진 씨.

작품을 만나고 그의 글을 좋아할 수 있게 된 것은 양 교수님 가르침 덕분”이었다며 “수업을 마치고 나면 무미 건조했던 작품들이 명쾌해지며 생명을 얻은 듯 살아나서 마음에 소박한 기쁨을 주었다”고 말했다.

알려진 대로 도연명은 당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명속에 묻혀 있어도 언젠가 보석은 빛을 발하는 법. 그는 정대의 평론가 심덕의 지적처럼 ‘당나라의 수많은 시인들이 숭모하는’ 문인의 본보기가 됐다.

양 교수는 “자신의 시대에는 응분의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훗날 국제적 명사가 되었는데 모르나”며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시대에 앞서서 나갔기에 다시 말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창도(唱導)했다”고 덧붙혔다.

도연명의 생애는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관직에 나갔다가 곧장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삶을 마쳤다’로 요약된다. 동진(東晉)과 남조 송(宋), 두 왕조를 걸쳐 살았지만 짧은 관직생활 이후로는 전원에서 묻힌 삶이었다.

“도연명의 시문에는 세 가지 사유가 늘 교차하고 있습니다. 영예와 잊속이 윤희하는 ‘현실사회’와 도가와

스란한 ‘대자연’ 그리고 생사를 속명으로 하는 ‘인생’에 대한 깊고 넓은 사유가 서로 맞물리면서 빛어납니다.” 양 교수는 진정한 삶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면 1500년도 넘는 옛적에 선각자로 앞서 길을 걸었던 도연명을 만나보라고 권했다.

중국어 교사로, 가정주부로, 대학원생으로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이 씨 또한 도연명의 작품과 글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렇게 매 작품이 끝나면 수업 내용을 토대로 원문과 역주를 정리하고 해설을 다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 씨는 “도연명의 작품을 번역하는 동안 함께한 동학들이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품고 도연명을 만나고자 모인 분들”이라며 “수업 전 각자 번역해 온 내용을 나누고 수업 중 함께 배우며 유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양 교수와 이 씨는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한경쟁과 이윤 극대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시대에 ‘전원’을 추구했던 도연명의 삶은 “커다란 울림을 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희태 지휘자와 함께하는

내셔널솔리스트엔앙상을 정기연주회



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내셔널솔리스트엔앙상 정기연주회가 오는 5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 레퍼토리는 바르톡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D 장조 K. 218’, 차이코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이다.

이날 공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고소현이 협연자로 특별출연하며 바이올리니스트 이준·오인표·임리경·박소영·이무송·김미현, 비올리스트 김현경·양운서·서선화·송재은, 첼리스트 이후성·정아름·이성복·윤지혜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베이스리스트 남한나, 오보이스트 송유주·송애리, 호른리스트 이정현·김호성 등도 참여한다.

이날 지휘를 맡은 서희태(사진)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오스트리아 빈 시립 콘서트바토리 성악과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빈 시립콘서트바토리 최고연주자과정 오페라과, 이태리 도니제티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오페라 지휘과를 졸업했다. 이후 MBC 미니시리즈 ‘베토벤 바이러스’ 예술감독, KMA(한국능률협회) 클래식아트경영 최고경영자과정 리딩멘토로 활동했다. 현재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심포니온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국립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서희태의 더 클래식’, ‘오케스트라처럼 경영하라’, ‘클래식 경영 콘서트’ 등이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나주문화재단연구소, 2~3일 ‘우리지역 마한문화제’ 특강

영산강 유역의 고대 사회를 알 수 있는 마한문화 특별 강좌가 열린다.

특히 이번 강연은 지난 6월 백제, 신라, 가야 등과 더불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마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이후 진행되는 강연이어서 의미가 깊다. 또한 6개의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거점으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 및 정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화재단 국립나주문화재단연구소(소장 임승경)는 ‘우리지역 마한문화제’를 주제로 2~3일 문화재단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강연을 개최한다. 먼저 2일에는 ‘광주·전남지역 마한문화권 설정의 당위성’ (임영진 전남대),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흥망성쇠·문

화와 고고의 비교’ (강봉룡 목포대), ‘한평·무안지역 마한문화제’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등을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3일에는 ‘광주·담양·화순지역 마한문화제’ (조진선 전남대), ‘나주·영암지역 마한문화제’ (이병기 전남문화재단연구소), ‘해남·신안지역 마한문화제’ (이정호 동신대), ‘영광·장성지역 마한문화제’ (송공선 호남문화재연구원)가 펼쳐진다.

아울러 민원으로 자주 접수되는 발견매장 문화재 행정처리 방법에 대한 ‘발견매장 문화재 정책 지원’ (이은지 나주문화재단연구소) 교육도 진행된다. 한편 이번 강연은 사전 예약 인원만 입장 가능하며, 강의 내용은 추후 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법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문화콘텐츠

조선대 서순복 교수 ‘한국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펴내

“스토리텔링은 고객들에게 특정장소나 상품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그 이야기에 반응함으로써 지역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21세기는 이야기가 자원의 시대이다.” 법대 교수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스토리텔링과 접목한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조선대 서순복 법대교수는 최근 ‘한국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박영사)을 펴냈다.

서 교수는 우리의 문화콘텐츠자원을 풍류, 정원, 음식, 한옥, 한복, 차, 서원, 불교, 기독교, 가사, 회화, 유

배문화로 유형화해 전문문화 자원의 내용과 특징을 담아냈으며 또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도 다뤘다.

저자가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40대 중반 일에 종속된 나머지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서였다. 당시 저자는 “삶을 돌아보니 후회스러운 것이 많았다. 운이 좋게 여행이라는 탈출구를 찾았다”며 “그 과정에서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받고 문화관광해설사로 20년 가까이 자원봉사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전공도 통신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바꿨고, 학문 활동도 문화행정 내지 문화정책과 관련된 논문과 저술 활동을 해왔다. 연구소 또한 문화 활동 위주로, 시민단체도 문화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책은 지난 20여 년 넘게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한 경험과 문화정책을 연구주제로 전착한 내용 그리고 각 분야 권위자들의 연구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종합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전반부는 이야기의 힘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중반부는 다양한 차원의 한국문화콘텐츠 자원과 스토리텔링을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주목했다.

한편 출판 기념회가 3일 오후 7시 동구 ‘푸른마을 공동체’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 (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 526-5475, 010-8621-5959

(유) 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장 전국 최저가도 · 소매
☎ 061) 335-2301~2, 010-3429-6400

퀸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 앞 (신한은행 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신신 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 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 71 (송월동 LG화학 옆)
근조·축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 334-3200, 010-3623-6921

만福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 959-0680, 010-4602-0680

자연모가발 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 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가발 맞춤 전문!
중형가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종로 리폼·대여 가능
☎ 062) 227-8084, 010-3608-294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 222-6866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 (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 225-3303, 010-2651-6409

비비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 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바비큐비빔밥·각종해산물·비빔밥·돌솥비빔밥·연어찜·회센터
☎ 062) 229-1008, 010-8572-0999

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 3차③상가동 3호
아파트·빌라·주택·상가·토지·임야·매매·전월세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본위
☎ 062) 574-8924, 010-9332-8184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 224-7687, 010-2611-7687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 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 266-1221, 010-2425-3093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 222-3118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 (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 222-2516

장어수산

북구 서암대로 88 (신안다리 앞)
무항생제 장어 사용
포장배달·전국 택배 배송·신물 포장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 412-1961, 010-5828-1961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 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 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 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 33-3번지 남고문두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